

경기가



[해제]

<경기가>는 “박소지 척 필하노라”라는 내용을 고려해 보면 작자는 박소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창작시기는 “무인남월 초치일 경인년 재차 초삼일”이라는 내용으로 볼 때 무인(戊寅)년인 1878년이나 1938년으로 재차(再次) 경인(庚寅)년인 1830년이나 1890년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두루말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규방가사 작품이다. 위에서 아래로 죽 이어 쓴 종서(縱書)의 형태이고, 순국문으로 된 두루말이 필사본으로 현재 한국가사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다. 모두 226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로 3음보와 4음보의 운율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조 영남지방에 양반 가문에서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가사를 지어 전승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어머니는 <내훈(內訓)>, <여사서(女四書)> 등의 여자 교훈서(女子敎訓書)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시집가는 딸에게 교훈적으로 행신 범절(行身凡節)과 시집살이의 방법을 적은 글을 전수(傳授)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여성상은 삼종지도, 남존여비, 과부재가 금지, 출가외인 등의 명분론과 가족제도, 혼인제도, 재산권의 제도적 변화 등 유교적 여범 중심 제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 작품의 내용을 보면 “여자 몸이 되어나서 삼종제에 있었으니 부부를 정한 후는 군자를 좇는 날에 빈부를 가릴손가.”, “출가외인 생각 말고 평안이 돌아가오.” 삼종제, 즉 ‘삼종지도’와 ‘출가외인’에 관한 이야기다. 이뿐만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조선시대 여성상이 대체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작품의 말미에서는 “시매 시숙 여러분을 부디부디 조심하여 공손하게 대접하라”라고 딸에게 당부하고 있다.

[원문]

경기가

서우리라 직상가일 여자일타 ◆◆
 여금옥갓치 자라니여 칠팔셔 ◆◆
 두하여 연화별당 흥초검의 승은
 김흔전 돌송하고 세세봉남 조흔딤의
 송육바도 히롱하고 부용옹의 두시변
 온갓노림 절기드이신 오연장 엇드오믹
 조흔곳 자시골나 강흔의 출과하야
 강정성의 손부되야 가정물필 조컨마는
 가손이 영치하야 수간초옥 정강손의
 식벽이 공혀하이 울던들 잇실소야
 소실단풍춘 구억키탄건 허니썩이로다 신흥올지
 흐다하인 죽인들먹일 소야남하딘 그저간이
 도로해 무식하다 횡왓든 오라바님
 눈물짓고 하늘마리 더을여기두고 엇지가리
 속절업다 도라가스 오라버님 시련이요
 가군마리 원마리요 여자몸이 되어나서
 삼종제의 잇서신이 부부을 정흔후난
 군조를 좇난날의 빈부을 가일손야
 화원별당 좇타히도 친부모 이집이요

진수성찬 조흔엄식 솜이본들 화병이요
 촌촌이복 고원복식 전일호강 고담이요
 소족방족 수간초옥 구고기신 닉집이요
 월노연분 엇지하고 친정팔즈 소길손야
 출가위인 심각말고 팽안이 도라가오
 할일구고 삼일문의 북억키 드르간이
 속소강시 부모봉양 무으시로 흥존말고
 죽절비여 전당잡뿔 쌀열되와 반촌산이
 불과스오 일지니니 그모양 도로되여
 우리부모 날보닉실씩 혼수이중 만큰마는
 날노씨로 파즈후이 그거들 엇지짓항후리
 일가친척 구지한들 석순인들 당홀소야
 빅기무척 흘수업서 그령저령 사라날제
 용심구진 시누이세 묘히하기 일삼은이
 눈이보고 귀이듯고 모보난치 못듯난치
 병신인치 소견업난 등신인치 빅기무직
 구고수중 을듯고 부수청명 숨숨하고
 연만후신 구고말슴 횡여일분 거스일가
 친정심각 간절흔들 식성조와 그려홀가
 버리깃득 지영죽을 탐탐하여 감식하며
 엇식비넥시 미울가는 치곰다하고 기운스발
 눈이쳐서 좇타하고 파라온쌀 육칠되와
 꾸워온콩 스오되을 다형이다 흥노그선
 쓰설순키 흥오미요 한기명을 추존키논시
 기세손중 흥오기요 놀고기는 기달킨들
 어룬압퓌 쉰지지며 부인덕목중 소리문박
 들일손가 히가저서 황흔되면 금일난관
 옥형이요 달키우러 서벽되면 오날히가
 쏘엇지홀고 동동촉촉 이니마음 시각인들
 이절손가 횡여혹시 분이달가 조심흥도
 무궁후드 근근임임 지닉온이 모양절노
 수척하다 흥서업시 정구역의 혈육지신
 못전되서 친가왕래 만큰마은 서른흔말
 분지렵다 적극간의 달난말이 혼두번
 안이그든 자식되온 니닉마음 변변이
 구홀손가 빈부다른 천정이어 부부모타시
 아이노라 각별골나 출가한이 그되서라
 말홀리요 의즈지심은 뇌가엄스리요 미워후여

그할가 혼튼흔들 무급이요 원망하며
 다키려다 복당송의 늘근구고 참아보고
 민망하다 어제전역 그저잇고 오날앗참
 식전이라 남의족식 되앗다가 사람노릇
 엇지허려하고 동평집의 추덕허로 보닉쓰이
 도라와서 허난마리 저닉문쌀 아이주고
 영치엄시 쏘완난앗 잠말말고 밧비가라하니
 한심허니 이닉몸이 금의옥식 길너라서
 전곡간의 몰낫든이 빈흔이 죽이엿디
 어딴도록 되엇난고 이목구비 남과갓치
 일신수족 송송허이 지심씨 모손토록
 허고보면 어느누가 시각홀가 천흔옥설
 면하리라 분흔마음 곳처먹고 치슨범절
 힘을썬다 님부조장 조는분딴 지가부줄는가
 목은쏘음 피와딴야 굴근비도 허여보고
 헛튼실도 가리니야 명주무명 되든디로
 혼필두필 싸닐지할 님주서 도포치와
 범주사이 육복치을 녹익홍송 처자치장
 청춘소연 익복이며 팔십노인 힌오시며
 원낭침의 수닛키며 봉향단문 처노키을
 허로밤 두시가지 면오록 가지를
 썬니며 증농을 일삼어며 전답의
 근농허기 썬을초조 힘을썬이 가산모양
 축실허든 어와 이려흔니 아니허고
 무엇허리 몽당치믹 썬치입고 싸지호박
 곳치며 달도치며 기도먹여 증이가서
 파라오고 혼푼도모우고 두푼도모와 쾌가되고
 쾌을모와 복이되야 뒷들익난 밧틀사고
 압들익난 눈을스서 우을썬고 담을치며
 초가짓고 기와짓고 가미숫치 줄줄이요
 유기반송기 가득하다 송허노비 밧치며
 수청허인 송송이라 님외헝늑 디문달고
 노식나귀 버려믹고 압되고방 여러칸의
 처와넛코 가딴멧멧치 머도당도 송추렴허
 인치물니며 각식잔물 밧비소용 가정공물
 드려오고 온갓보빅 귀흔물건 썬을초조
 즐노온다 노적흔썬 오릭속을 일여양식
 마련하고 두지돈이 천양을 용초로

두고시이 니왕이 난흔심 트이니
 지칭각 다시후이 첩첩한 궁갓도다
 시집온지 십연만의 가산니누 만지요
 술을밧고 소을자바 늘견구고 보양출지
 초일치고 밥을지여 오난빈직 점디하고
 능나겸의 오설지여 씨을싸라 가라입고
 치운스람 오설주며 주린스람 바을주며
 손님왔다 도라가며 옥기후라 노즈주고
 호인디스 돈지니며 전곡가니 쥬여
 부주후고 교빈족뭇 스나니 닉집갓치
 구조후고 아달형지 겁지후여 벼살하고
 닉외형낭 형노후며 부기영화 격진한니
 닉팔즈가 거록후다 자손을잡고 이런마리
 쌀얼길너 출가출지 부부유벌 일너신니
 군즈디점 극진후다 천정후온 인연어로
 인간빅필 되여시라 빅연고락 너니빅필
 잇사람의 아나이 니가만일 줄뭇후며
 중부에눈이 벼셔나며 독수공방 촌즈리의
 뉘을의지 후존말가 죽은스람 몸이되면
 궁속니나 보거이와 손스람기려 기난일
 신싱전간 중니라 만나보며 눈혈기여
 물난마리 편존이라 남남지간 서로만나
 인정으로 살아났다 가정의흔변 쓴어지면
 남만뭇후 나니라 너든군즈 이절하며
 다시뉘가 반가하라 뉘아모리 말줄후되
 시부모도 미워후고 형동그지 잘후여도
 비복동이 숙만본다 부디부디 닉훈말을
 올히여기 싱각후면 자푼정이 다시니며
 업치진물 다시담을 손양 싸라싸라
 우리싸라 부디부디 조심후여라 지이비난
 하나리요 지어미난 쌍이되니 구만장천
 노푼하날 쌍이감히 거사릴가 여스형실
 이렬진디 유인후미 엇솜이라 군즈이기
 쫓절바다 여자문답 순키후여 식성디로
 맛보아서 엄식공정 디접후고 성니거든
 우섬웃고 걱정거든 황공후여 종구질와
 형마라 종이기 원망이요 즈식칠지
 말유마라 자식형실 거룻친다 부정형실

횡치미라 한두변이 눈이나면 중부쫓
 지치하며 쫓연심중 송흐나니 부딪조심
 흘지여 쫓식분디로 시횡흐니 초롭동이
 어린가중 가소롭기 아지마라 방춘황키
 조흔날의 엄동될디 불그신이 거리도
 하늘이라 진동홀가 염여료다 연광쳐서
 중성후의 소박하며 흥괴홀가 직상흐신
 저흐나를 뉘라서 막을소가 남쫓성정
 흥악하고 여쫓성정 악흐이 유양되어
 익키여가 닌범절 낭픽하고 온갓저양
 쫓조어려 픽가망신 흐난니라 조정식
 하야중야 성흐며 그날이 틱평흐나
 부딪부딪 닌말고 이담아 죽기전
 잊지마라 훈푼두푼 적은곳도 눈긴이면
 바렷되다 축흔횡실 쏜을바다 틱님틱스
 빅와니며 닌몸아이 점잔홀가 죽기갓치
 풍경하고 노닌갓치 디접흐라 압만보고
 거람하고 심각흐야 말은하고 지사엄식
 중만홀저 부정조심하고 쫓분곳디 안짐도
 되을보와 정히안고 치안니 헛우숨을
 어룬압픽 우지말고 신을쓰이 깃침하고
 지극히 문을열고 횡동그지 처신범절
 지중키 조심하고 등즌되이 남보기와
 창밭고 옛듯난 횡픽한집 횡실이고
 명심경경 흐여라 나무남정 흐난말과
 이웃집 시비골절 마을마라 횡실이
 업난이라 비복들리 글얼일으난 처이말을마라
 이웃간의 호인딕사 방간흐여 말을마라
 묘진횡살 드르난다 찬찬외복 곱기입고
 흘며선이 웃지마라 지그두고 읍다마른
 치사하기 부딪마라 순식간의 니렬차려
 주고받기 서로말고 어진마음 곱츠먹고
 이웃집의 자식말고 조상전의 기명을
 쫓시간수 흐여두고 악훈마을 부딪마라
 지신명 히렵다 부모님고 지천몸을
 상키말고 보존흐라 성인경이 흐신말삼
 지일 삼천죄목 의논흐며 지흐부인
 불효니라 호자충신 쏜을바다 아모조록

비와니야 지성지미 못하여도 안이함과
 갓탈손가 니나이 오십이라 구의귀
 조심함이 훗촉동방 천날밤과 일분이다
 다을손가 총춘시절 디종부가 소실화방
 담기그든 우섬으로 말유하고 노류장황
 논다하여 닉식하여 마을말고 방감하기
 대접하며 장부마음 화락하여 닉기정이
 김펴온다 너무훈기 잇지마라 광대한천지
 간대거련 부모엄난이라 건내집 귀썩엄미
 시접사려 후는말랄 너도잇고 드렸시나
 다시일느 경이훈다 지가의초 시집올씩
 거집가산 누만죄요 안박딤운 닉외사랑
 노복등이 버려잇고 쌀노적과 판노점이
 돈고왕이 콩노적이니 근점빅 소문나고
 누아니 부려후리 그집운수 불길튼가
 사람니 용열튼가 가미문박 썩나서며
 눈을쓰서 히두려며 횡동그지 히연후다
 신부모다 처엄이라 오류의벼 서난다시
 동심호려후기 남익자식 익질후기 남익남편
 욱설후기 안되난집 조와하고 되난이
 시려후나 근동의 소문이 서누아니
 욱설후리 횡살리 저려후이 침선인들
 줄홀소야 가장이들 섬길소야 톱산간치
 사인죄물 피가망신 되어서니 참혹하다
 귀동어미 단두일신 분이로다 짜라짜라
 우리짜라 시접사리 조심후라 어미횡살
 썩을바다 시부모그 공손후고 군자전의
 현성후고 일가친척 우익하라 여자횡살
 어렵뉘라 짜라짜라 우지마라 어미마엄
 살난후다 부딤부딤 여자유횡되마 부모형지며
 근이후니 어엿부다 우리쌀아 행동거지
 여공식질 닉말딤도 잇기마라 명연삼월
 도라오며 노금망초 성화시의 몸식소리
 훈가지로 느을다시 다리오마 닉외금살
 화락하며 부딤잇지마라 횡살을 그려치며
 일가친척 외인들이 흥을보고 웃나이라
 천위선조 우연홀일뭇썩 느을노코 심각후이
 섬섬후디 불상하다 주야료 키와닐지

추진자리 니가높고 마른조리 너을높피
한달두달 니연니며 촛촛점점 키와니이
어미불느 운난모양 쌍것쌍긋 웃남그동
귀훈마염 소사난다 뉘가본딤 무식하야
가라친일 바히업고 어진가문 보닌존이
황송하고 두려하다 온갓일과 직절별씩
뉘가뉘 엇지아라시라 주야료 하난마리
조부모 구고전의 호성이 엇듬이라
시익시숙 여러분을 부딤부딤 조심하여
공순키 디접하여라 이복엄식 하여간의
극직극진하라 어린시숙 어린시익 우의잇기
잘지니라 여조의 다른형실 오륜이
웃이라이 말경기하여다 연한형실 쏜바들그시라
무인남월 초치일경 인연지초 초숨일
박소지척 필하노라 필지도 괴괴한님
보는사람 누가아니 우서리요 마는놀느
용서하압소서

[현대역]

경기가

서울이라 재상가일 여자일타 ◆◆
여 금옥 같이 자라내어 칠팔세 ◆◆
두하여 연화별당 흥초검에 승은
김흔전 돌송하고 세세봉남 좋은 데에
상육바도 히롱하고 부용옹매 두 세번
온갖 노림 절기드니 십오년장 어디오매
좋은 곳 자세 골라 강한에 출가하여
강정성에 손부1되어 가정 물필 좋건마는
가산2이 영치하여 수간초옥3 정강산에
세벽이 공허하니 울던들 있을소냐
소실단풍찬 구억캐 탄건 하나 뿐이로다 신행 올 지
흐다하니 죽인들 먹일소냐 나머진 그저 가니
도로해 무색하다 행 왔던 오라버님
눈물짓고 하는 말이 저를 여기 두고 어찌가리
속절없다 돌아가자 오라버님 시련이요
가군 말이 웬말이요 여자 몸이 되어나서
삼중제4에 있었으니 부부를 정한 후는
군자를 좇는 날에 빈부를 가릴손가
화원별당 좋다 해도 친부모 이집이요
진수성찬 좋은 음식 꿈에 본들 화병5이요
찬찬이복 고운복색 전일호강6 고담7이요
소족방죽8 수간초옥9 구고10이신 내집이요
월로연분 어찌하고 친정팔자 속일소냐
출가외인 생각 말고 평안이 돌아가오
할일구고 삼일 만에 부역에 들어가니
속소강시 부모봉양 무엇으로 하잔 말고
죽절11비어 전당12잡혀 쌀 열 되와 반찬사니
불과 사오일 지내니 그 모양 도로되어
우리부모 날 보내실 때 혼수이장 많건마는
날로 되로 팔자하니 그것들 어찌 지탱 하리
일가친척 구제한들 석순인들 당할소냐
백기무책 할 수 없어 그럭저럭 살아날 때
용심구진 시누에 세모13해 하기 일삼으니
눈에 보고 귀에 듣고 못 보는지 못 듣는지
병신인지 소견 없는 등신인지 백기무직

구고 꾸중을 듣고 부수청명14 삼삼하고
 연만15하신 구고말씀 행여 일본 거사일까
 천정생각 간절한들 식성 좋아 그러할까
 별이 가득 지영죽을 탐탐하여 감식하며
 옛세비넥시 미울가는 치곰다 하고 기운사발
 눈에 차서 좋다하고 팔아온 쌀 육 칠 되와
 꾸워온 콩 사 오 되를 다행이다 하는 것은
 뜻을 순하게 하옵이요 한 기명을 추존키는시
 기세존중 하오기요 날고기는 개달킨들
 어른 앞에 꾸짖으며 부인대 목중 소리문밖
 들릴손가 해가져서 황혼 되면 금일난관
 옥행이요 달 키우러 새벽 되면 오늘해가
 또 어찌할꼬 동동촉촉16 이내마음 시각인들
 잇을손가 행여 혹시 분에 달가 조심함도
 무궁하다 근근임임 지내오니 모양 절로
 수척하다 할 수 없이 정구역에 혈육지신
 못 견디어서 친가 왕래 많건마는 서러운 말
 분지럽다 적 곡간에 달만 말이 한두 번
 아니거든 자식 되온 이내마음 번번이
 구할손가 빈부 다른 천정이니 부 부모 탓이
 아니로라 각별 골라 출가하니 그때서야
 말할리요 애자지심은 내가 없으리요 미워하여
 그 할까 한탄한들 무급이요 원망하며
 내거려다 북당상에 늙은 구고 참아보고
 민망하다 어제 저녁 그저 잊고 오늘 아침
 식전이라 남에 자식 되었다가 사람노릇
 어찌 하려하고 동평 집에 추대하로 보냈더니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저 내 문 쌀 아이주고
 염치없이 또 왔느냐 잔말 말고 바빠가라 하니
 한심하네 이내몸이 금애옥식17 길러나서
 전곡 간에 몰랐더니 빈하니 작이 없데
 어대도록 되었는고 이목구비 남과같이
 일신수족18 송송19하니 지심 씨 모손토록
 하고보면 어느 누가 시각할까 천한옥설
 면하리라 분한마음 고쳐먹고 치산범절20
 힘을 쓴다 님 부자장자는 본대 지가 부자인가
 묵은 쪼음 피와 내야 굶은 비도 하여보고
 허튼 실도 가려내어 명주무명21 되는대로

한필두필 짜낼지 할 님 주소 도포22 채와
범주사에 육복치를 녹의홍상23 처자치장
청춘소년 예복24이며 팔십 노인 흰옷이며
원앙침25에 수놓기며 봉향단문 처널기를
하룻밤 두시까지 면 오륙 가지를
짜내며 잠농을 일삼으며 전담26에
근농27하기 때를 찾아 힘을 쓰니 가산28모양
착실하다 어와 이려하니 아니하고
무엇하리 몽당치마 떨치입고29 가지호박
고추며 달도치며 개도먹여 장애가서
팔아오고 한 폰도 모으고 두 폰도 모아 쾌30가 되고
괘를 모아 백이 되어 뒷들에는 발을 사고
앞들에는 논을 사서 우를 뜯고 담을 치며
초가 짓고 기와 짓고 가마솔이 줄줄이요
유기반상기31 가득하다 상하노비 미치며
수청하인32 쌍쌍이라 내외행락33 대문 달고
노세나귀 버려매고 앞되 고방34 여러 칸에
채워놓고 가대 몇몇이 머도장도 상추렴하 인제 물리며 각색잔물 바빠 소용 가정공물
들여오고 온갖 보배 귀한물건 때를 찾아
저절로 온다 노적35한 쌀 오백숙을 일여양식
마련하고 두지36 돈이 천양을 용차로
두고시니 이왕에 난 한심 트이니
지 생각 다시하니 첩첩한 꿈 같도다
시집온 지 십년 만에 가산이 누만재37요
술을 받고 소를 잡아 늙은 구고 보양출지
차일치고 밥을 지어 오는 빈객 접대하고
능나겹에 옷을 지어 때를 따라 갈아입고
추운사람 옷을 주며 주린 사람 밥을 주며
손님왔다 돌아가며 옥기38하라 노자39주고
호인대사 돈지내며 전곡가 내주어
부주하고 교빈족 못사나니 내집같이
구조하고 아달형지 겁지하여 벼슬하고
내외행랑 행로하며 부기영화 격진하니
내 팔자가 거록하다 자손을 잡고 이른 말이
말을 길러 출가할지 부부유별40 일렸으니
군자대접 극진하다 천정41하온 인연으로
인간배필42 되었어라 백년고락43 너 내 배필
윗사람의 아나니 내가만일 잘못하며

장부의 눈에 벗어나며 독수공방44 찬 자리에
뉘를 의지하잔 말인가 죽은 사람 몸이 되면
꿈속이나 보거이와 산사람 기려 기난일
신 생전 간장이라 만나보며 눈 흘기어
묻는 말이 편잔이라 남남지간 서로 만나
인정으로 살아났다 가정이 한번 끊어지면
남만 못하나니라 너든 군자 애절하며
다시 뉘가 반가하라 뉘 아무리 말 잘하되
시부모도 미워하고 행동거지 잘하여도
비복동이 흥만 본다 부디부디 내 한 말을
올해여기 생각하면 자푼 정이 다시내며
엮어진 물 다시 담을소냐 따라따라
우리따라 부디부디 조심하여라 지아비는
하늘이요 지어미는 땅이되니 구만장천45
높은 하늘 땅이 감히 거사릴가 여사행실
이럴진대 유인함이 으뜸이라 군자애기
뜻을 받아 여자문답 순키하여 식성대로
맛보아서 음식공정 대접하고 성내거든
웃음 웃고 걱정거든 황공하여 종구질와
힘마라 종애기 원망이요 자식칠지
만류마라 자식행실 그릇친다 부정행실
행치미라 한두 번이 눈에 나면 장부 뜻
지치하며 자연심장 상하나니 부디 조심
할지어 자식 분대로 시행하네 초롭동이
어린가장 가소롭기 알지마라 방춘황키
좋은 날에 엄동46될 대 볼거시니 거래도
하늘이라 진동할까 염려로다 연광47차서
장성 후에 소박하며 한가할까 자상하신
저 하나를 뉘라서 막을소냐 남자성정48
흉악하고 여자성정 악하니 유양되어
막히어가 내 범절 낭패하고 온갖 재앙
자주 어려 패가망신 하는이라 조정식
하야 중야 성하며 그날이 태평하나
부디부디 내말 귀에 담아 죽기 전
잊지마라 한푼 두푼 적은 것도 눈긴이면
바렸되다 착한행실 본을 받아 태님태사
배워내며 내 몸 아니 점잔할까 죽기같이
공경하고 노인같이 대접하라 앞만 보고

걸음하고 생각하여 말은 하고 제사음식
 장만할 저 부정 조심하고 좁은 곳에 앉음도
 되를 보와 정히 앉고 치안이 헛웃음을
 어른 앞에 울지 말고 신을 끄어 기침하고
 지극히 문을 열고 행동거지 처신법절
 지중기 조심하고 등잔되어 남보기와
 창밖에 엿듣는 행패 한집 행실이고
 명심경경 하여라 나무 남정 하는 말과
 이웃집 시비골절 말을마라 행실이
 없느니라 비복들이 글을 읽는 곳 이 말을마라
 이웃 간에 호인되어 방간하여 말을마라
 모진행실 들어난다 찬찬외복 곱게입고
 흘며서니 웃지마라 지그 두고 없다마는
 치사하기 부대마라 순식간에 니컬차려
 주고받기 서로말고 어진마음 고쳐먹고
 이웃집에 자식말고 조상전에 기명을
 자시간수 하여두고 악한 말을 부대마라
 지신명 해롭다 부모님께 지친 몸을
 상의말고 보존하라 성인경이 하신말씀
 지일 삼천죄목49 의논하며 지하부인
 불효니라 효자충신 본을 받아 아무썽록
 배워내어 지성지미 못하여도 아니함과
 같을손가 내 나이 오십이라 구의께
 조심함이 화촉동방50 첫날밤과 일분이다
 다를손가 청춘시절 대종부가 소실화방
 담기거든 웃음으로 만류하고 노류장황51
 논다하여 내색하여 말을 말고 반갑하기
 대접하며 장부마음 화락하여 내기정이
 깊어온다 너무 훈기 잊지마라 광대한천지
 간대거든 부모 없느니라 건내 집 귀똥 어머니
 시집살이 하는 말을 너도 있고 드렸으나
 다시일러 경이한다 시가의 초 시집올 때
 그 집 가산 누만재요 안팎대문 내외사랑
 노복52 등이 버려있고 쌀 노적과 판 노접이
 돈고왕이 콩노적이니 근접배 소문나고
 누가 아니 부러워하리 그 집 운수 불길 한가
 사람이 용렬한가 가매문밖 썩 나서며
 눈을 떠서 히두르며 행동거지 해연하다53

신부모다 처음이라 오륜54의 벗어난다
시동생 호려하기 남의자식 매질하기 남의 남편
욕설하기 안 되는 집 좋아하고 되난이
싫어하나 근동의 소문 있어 누가 아니
욕설하리 행실이 저러하니 침선인들
잘할소냐 가장인들 섬길소냐 태산같이
쌀인 죄물 패가망신 되었으니 참혹하다
귀동어미 단두일신 분이로다 따라따라
우리따라 시집살이 조심하라 어미행실
본을 받아 시부모께 공손하고 군자전에
현성55하고 일가친척 우애하라 여자행실
어렵로라 따라따라 울지마라 어미마음
산란하다56 부디부디 여자 유행 되마 부모형제며
근이하니 어여쁘다 우리딸아 행동거지
여공세질 내말대로 잊지마라 명년삼월57
돌아오며 녹음방초58 성화59시의 몸 세 소리
한가지로 너를 다시 다려오마 내외금실
화락하며60 부디 잊지마라 행실61을 그르치며
일가친척 외인들이 흉을 보고 웃느니라
천위선조 우연할일 못 쓸 너를 놓고 생각하니
섭섭하되 불상하다 주야62로 키워낼지
젖은 자리 내가 눕고 마른자리 너를 눕혀
한 달 두 달 이연이며 차차 점점 키워내니
어미 불러 웃는 모양 쌍긋쌍긋 웃는 거동
귀한마음 솟아난다 뉘가 본디 무식하여
가르친 일 바이없고 어진가문 보내자니
황송하고 두려하다 온갖 일과 재절별백
뉘가뉘 어찌 알았으랴 주야로 하는 말이
조부모 구고전에 효성이 으뜸이라
시매 시숙63 여러분을 부디부디 조심하여
공손하게 대접하여라 애복음식 하여간의
극직극진하라 어린시숙 어린시매 우애있게
잘지내라 여자에 다른 행실 오륜이
웃이라 이 말 경기하여다 연한행실 본받을 것이라
무인남월 초치일 경인년 재차 초삼일
박소지척 필하노라 필재도 괴괴한 님
보는 사람 누가 아니 웃으리요마는 늘
용서 하옵소서

[각주]

- 1) 손부(孫婦) : 손자며느리.
- 2) 가산(家産) : 한 집안의 재산.
- 3) 수간초옥(數間草屋) : 수간모옥. 몇 칸 안 되는 작은 초가(草家)를 이룸.
- 4) 삼종제(三從弟) : 팔촌이 되는 동생.
- 5) 화병(火病) : 울화(鬱火)병. 울화로 생긴 병.
- 6) 호강 : 호화롭고 편안한 삶을 누림. 또는 그런 생활.
- 7) 고담(高談) : 고상한 말.
- 8) 소족방족(素族房族) : 소족은 관직에 있지 아니한 일반 백성. 방족은 집안 주인의 친족.
- 9) 수간초옥(數間草屋) : 수간모옥(數間茅屋). 몇 칸 안 되는 작은 초가.
- 10) 구고(舅姑) :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 11) 죽절(竹節) : 대의 마디.
- 12) 전당(典當) :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맡긴 물건 따위를 마음대로 처분하여도 좋다는 조건하에 돈을 빌리는 일.
- 13) 세모(歲暮) : 세밑.
- 14) 부수청명(俯首聽命) : 부수청령. 윗사람의 위험에 놀려 다소곳하게 명령에 복종함.
- 15) 연만(年晩/年滿) : 나이가 아주 많음.
- 16) 동동촉촉(洞洞屬屬) : 공경하고 삼가며 매우 조심스러움.
- 17) 금애옥식(禁隘玉食) : 금애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요새 지대. 옥식은 맛있는 음식. 하얀 쌀밥.
- 18) 일신수족(一身手足) : 일신(一身)은 자기 한 몸. 수족(手足)은 손발. 형제나 자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9) 숭숭(崇崇) : 위용 따위가 높디높음.
- 20) 치산범절(治産凡節) : 치산(治産)은 집안 살림살이를 잘 돌보고 다스림. 범절(凡節)은 법도에 맞는 모든 질서나 절차를 말함.
- 21) 명주무명(明紬) : 명주(明紬)는 명주실로 무늬 없이 짠 피륙. 무명은 무명실로 짠 피륙
- 22) 도포(道袍) : 예전에, 통상 예복으로 입던 남자의 겹옷. 소매가 넓고 등 뒤에는 띠 폭을 땀.
- 23) 녹의홍상(綠衣紅裳) :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의 옷차림을 이르는 말.
- 24) 예복(禮服) : 의식을 치르거나 특별히 예절을 차릴 때에 입는 옷.
- 25) 원앙침(鴛鴦枕) : 원앙을 수놓은 베개. 부부가 함께 베는 베개.
- 26) 전답(田畝) : 논밭. ‘논밭’으로 순화됨.
- 27) 근농(勤農) : 농사를 부지런히 지음. 또는 그런 농민.
- 28) 가산(家産) : 한 집안의 재산.
- 29) 몽당치마 띠치입고 : 짧은 치마 걸쳐 입고.
- 30) 쾌 : 예전에, 엽전을 묶어 세던 단위. 한 쾌는 엽전 열 냇을 이룸.
- 31) 반상기(飯床器) : 격식을 갖추어 밥상 하나를 차리도록 만든 한 벌의 그릇. 사기나 놋쇠 따위로 만들며, 주발·대접·쟁반·탕기·조칫보·보시기·종지 따위를 기본으로 하고 쟁첩의 수에 따라 3첩·5첩·7첩·9첩 등으로 구별하고, 대접과 쟁반 외에는 모두 뚜껑이 있음.
- 32) 수청하인(守廳下人) : 높은 벼슬아치 밑에서 심부름을 하던 사람. 아녀자나 기생이 높은 벼슬아치

에게 몸을 바쳐 시중을 들던 사람을 지칭함. 또는 그 아녀자나 기생.

33) 행락(行樂) : 재미있게 놀고 즐겁게 지냄.

34) 고방(庫房) : ‘광’의 원말.

35) 노적(露積) : 곡식 따위를 한데에 수북이 쌓음. 또는 그런 물건.

36) 두지(斗度) : 뒤주. ‘뒤주’를 한자를 빌려서 쓴 말임. 뒤주는 쌀 따위의 곡식을 담아 두는 세간의 하나. 나무로 껍질같이 만드는데, 네 기둥과 짧은 발이 있으며 뚜껑의 절반 앞쪽이 문이 됨.

37) 누만재(累萬在) : 누만은 여러 만(萬)이라는 뜻으로, 아주 많은 수를 이르는 말. 재(在)는 물건이나 돈 따위의 쓰고 난 나머지.

38) 옥기(玉器) : 옥그릇.

39) 노자(路資) : 먼 길을 떠나 오가는 데 드는 비용.

40) 부부유별(夫婦有別) : 오륜(五倫)의 하나. 남편과 아내 사이의 도리는 서로 침범하지 않음에 있음을 이룸.

41) 천정(天情) : 타고난 성품.

42) 배필(配匹) : 부부로서의 짝.

43) 백년고락(百年苦樂) : 긴 세월 동안의 괴로움과 즐거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44) 독수공방(獨守空房) : 혼자서 지내는 것. 아내가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것을 이룸.

45) 구만장천(九萬長天) : 구만리장천.

46) 엄동(嚴冬) : 몹시 추운 겨울.

47) 연광(年光) : 변하는 사철의 경치. 젊은 나이.

48) 성정(性情) : 성질과 심정. 또는 타고난 본성.

49) 삼천죄목(三千罪目) : 삼천은 천태종에서, 모든 만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지옥에서 불계(佛界)까지가 열이고, 그 열이 각각 열 개의 세계를 가짐으로써 백(百)이 되며, 그 백은 각각 열 가지 상(相)이 있어 천(千)이 되고, 그 천이 중생, 국토(國土), 오음(五陰)의 구별이 있어 모두 삼천이 된다. 죄목은 저지른 죄의 명목.

50) 화촉동방(華燭洞房) : 첫날밤에 신랑 신부가 자는 방.

51) 노류장황(路柳張皇) : 노류는 길가의 버들. 장황은 번거롭고도 길다.

52) 노복(老僕) : 늙은 사내종.

53) 해연(駭然)하다 : 몹시 이상스러워 놀란다.

54) 오륜(五倫) : 유학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봉우유신을 이룸.

55) 현성(賢聖) : 현인(賢人)과 성인(聖人)을 아울러 이르는 말. 불교에서, 현인과 성자(聖者)를 아울러 이르는 말.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 가운데 견도(見道) 이상에 이른 사람이 성자이며, 견도에 이르지 않는으나 악(惡)에서 벗어난 사람이 현인임. 소승에서는 칠현 칠성(七賢七聖)을 말하고, 대승에서는 칠현 십성(七賢十聖)을 말함.

56) 산란하다(散) : 흩어져 어지럽다. 어수선하고 뒤숭숭하다.

57) 명년삼월(明年三月) : 올해의 다음. ‘내년(來年)’, ‘다음 해’로 순화. 다음 해 삼월.

58) 녹음방초(綠陰芳草) : 푸르게 우거진 나무와 향기로운 풀이라는 뜻으로, 여름철의 자연경관을 이르는 말.

- 59) 성화(盛火) : 활활 타오르는 불.
- 60) 화락(和樂)하며 : 화평하고 즐거움.
- 61) 행실(行實) : 실지로 드러나는 행동.
- 62) 주야(晝夜) : 밤낮. 쉬지 아니하고 계속함.
- 63) 시숙(媿叔) : 남편의 형제를 이르는 말.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